光州日報

대표전화 (062)222-8111 제21665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69 2021년 12월 29일 수요일 음력 11월 26일 kwangju.co.kr

쌀 초과생산 20만t 시장격리

당정, 쌀값안정위해 1월 중 조치
전남도 "초과생산 전량 격리해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8일 쌀값 안정을 위해 내년 1월 중 초과생산 쌀 가운데 20만t을 시장격리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 등 농도 전남에선 일단 정부 방침을 환영하면서도 "때늦은 조치로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선 초과생산된 31만t 쌀 전량 시장격리 등 과감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반응이 나온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쌀 시장격리 당정협의'를 갖고 쌀 시장 안정을 위해 1월 중 20만t 시장 격리 방침을 밝혔다. 당정은 올해 초과생산량 27만t 가운데 20만t을 내년 1월 중 시장격리하고 잔여물량 7만t에 대해서는 시장상황에 따라 추가 수매 시기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추후 이해관계자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만t 매입에 대한 세부 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정의 초과 생산 쌀 시장격리 방침 확정에도 농도 전남에서는 뜨뜻미지근한 반응이 나온다. 전남도와 농협, 농민단체는 일단은 환영할 만한 조치라고 평가하면서도 대체적으로 "이정도 정부 조치론 쌀값 안정(가격 유지)은 어림없다"는 분위기다.

정부가 시기적으로 뒤늦게 시장격리 방침을 밝히면서 쌀값 하락을 부추겼고, 격리 물량도 초과생산된 31만t이 아니라 20만t에서 27만t으로 최대 10만t 이상 차이가 있어 쌀값 안정 효과도 미미할 것이라는 게 전남도 안팎의 대체적 분석이다.

전남도는 지난 9월 29일 전년 대비 약 28만t의 쌀이 초과 생산돼 쌀값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선제적으로 시장 격리에 나서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역시 "조속히 초과 생산 쌀을 시장 격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지만, 당정의 시장격리 방침 확정은 지난 9월 전남도의 첫 건의 이후 3개월이 지나서야 확정됐다.

2021년 쌀 생산량이 전년 대비 10.7% 증가한 388만t으로 집계되고(통계청 11월15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가 2022년 쌀 소비량은 생산량에 비해 31만t 적은 357만t으로 추산되는데도 시장 격리가 미뤄지면서 쌀값은 하락세를 면치못했다. 12월 25일 기준 산지 쌀값은 20만5016원/80㎏으로 전년 동기 대비 5.88%(1만2804원) 낮고, 지난 15일 이뤄진 전회 조사때보다 2288원이나 하락했다. 2021년 공공비축미 1등 매입가 역시 7만4300원으로 전년 7만5140원 대비 840원 떨어지면서 농민 소득은 더욱 줄게 됐다.

뒤늦은 시장격리 방침 확정에 이어 격리 물량도 논란이다. 양곡수급안정위원회가 추산한 초과생산량은 27만~31만t인데, 당정은 이날 초과생산량은 최소 추산치인 27만t을 기준 삼아 우선 내년 1월 중 "20만t을 격리하고 시장 상황을 봐가며 7만t 추가 격리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김선호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광주전남연맹 사무처장은 "정부로선 물가 상승이 부담스러워 최대한 시장격리를 늦췄겠지만, 왜 항상 쌀이 물가 인상을 막기 위한 희생양이 돼야 하느냐. 10만t 추가 격리 등 과감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합장 등 전남농협에서는 "국가기관인 통계청 조사 결과 31만t 초과 생산됐는데, 정부는 초과생산물량을 27만t으로 보고 우선 20만t을 내년 1월 중 시장격리한다고 한다. 이정도로는 쌀값 하락을 막는데 큰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의 시장격리 실시 자체는 환영한다"면서도 "정부로선 물가 인상 부담이 있었겠지만, 격리 물량도 충분치 않고 시기도 늦었다. 필요할 경우, 추가 물량 시장 격리를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2021년이 저물어가는 28일, 광주의 관문인 제2순환도로를 통과하는 차량들이 환한 헤드라이트 궤적을 남기며 빠르게 질주하고 있다. 코로나19로 힘들었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롭게 맞이하는 2022년 새해에는 모두가 일상의 행복을 되찾을 수 있기를 기원한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이용섭 시장 "더 크고 더 강한 광주"
김영록 지사 "신해양·친환경수도 전남"

시장·지사 미래 비전 제시

이용섭 광주시장은 '더 크고 더 강한 광주'를, 김영록 전남지사는 '신해양·친환경수도 전남'을 광주·전남의 미래 비전으로 각각 제시했다.

〈관련기사 5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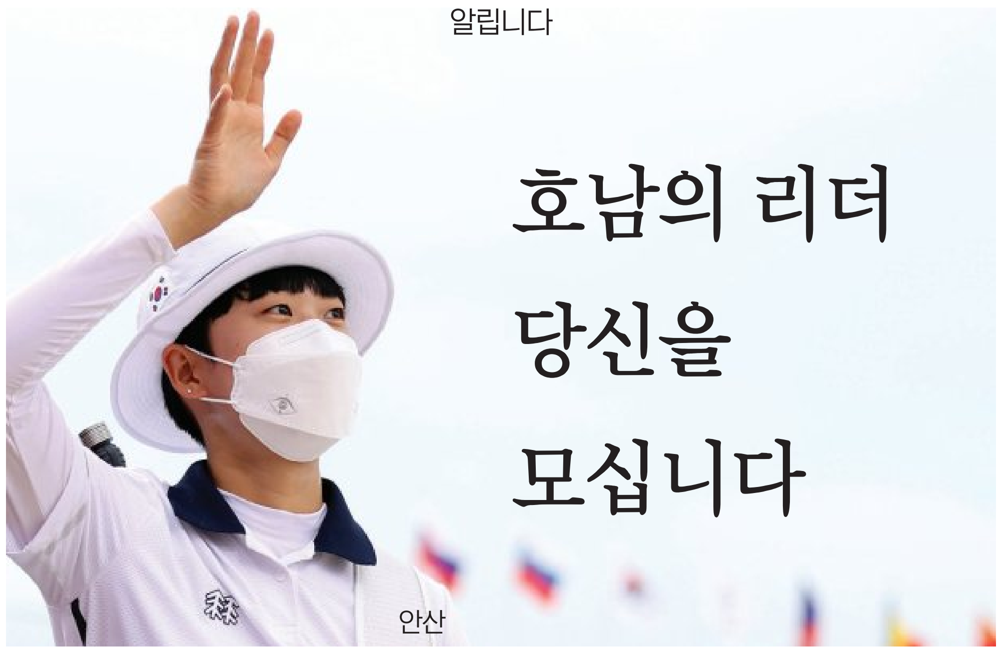
이 시장은 메가시티 조성, 스마트 그린 펀(Smart Green Fun) 시티 구축, 청년이 찾아오는 도시 구현 등을 3대 시정 방향으로 설정했다. 김 지사는 미래 100년 성장 동력 확보, 글로벌 에너지 대전환 선도, 환태평양 시대 관문 도약 등 7대 분야 미래 청사진을 발표했다. 다만 이 시장은 광주와 인접 시·군을 엮는 빛고을 스마트 메가시티를, 김 지사는 광주·전남·부산·울산·경남 등 5개 시·도를 묶는 초광역 메가시티를 각각 주장하며 시각차를 보였다.

이 시장은 28일 "임인년(壬寅年) 새해에는 '더 크고 더 강한 광주 시대'를 열기 위해 전남 5개 시·군과 함께하는 메가시티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와 인접한 전남 5개 시·군(나주, 화순, 담양, 함평, 장성)을 단일경제권으로 묶어 인공지능 기반 '빛고을 스마트 메가시티'를 만들겠다"며 "광주천 시대에서 영산강 시대로 대전환의 물꼬를 터 광주, 장성, 담양, 화순, 나주, 영암, 목포를 연결하는 광역 경제·생태·역사·문화·관광 벨트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미래 100년, 세계로 뻗어나가는 전남 100년을 위해 환태평양 관문으로 도약해야 하며, 정부도 함께 협력해야 한다"며 "남해안 5개 시·도가 수도권에 대응하는 경제 및 관광권역을 형성해야 하며, 이것이 초광역 메가시티"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 철도망을 서둘러 고속화해야 하며, 정부도 남해안의 해양관광도로가 지역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국가적 신성장 동력은 남해안남부권에 있으며,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이 축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알립니다



김상욱 교수

김대식 교수

김정운 교수

최재붕 교수

고수들의 명 강연 … 지역 최고 인적 네트워크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제10기 원우 모집

광주일보가 주최하는 고품격 아카데미에 광주·전남 지역 각계 리더들을 모십니다.

광주일보는 내년 3월부터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 등 각 분야 유력인사들이 참여하는 1년 과정의 '제10기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를 개설합니다.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국내 최고 전문가들을 초빙해 수준 높은 강의와 함께 각종 공연 등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올해 10주년을 맞은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는 강연과 토론을 통해 국가와 지역사회 주요 영역의 시대적 과제와 해결책을 집중 탐구하는 최고급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창간 70주년이라는 호남 최고 전통에 빛나는 광주일보 브랜드 가치와 영향력에 걸맞게 수강생 여러분이 지역사회 최상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일보가 평생 가족으로 모시는 교육과 교류의 장에 지역 리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 모집 인원 : 00명
- ■ 지원 자격 : 기업 경영진 및 임원, 국회의원·지방의원, 지방자치단제·정부기관 단체장 및 고위 관리자, 사회단체장, 법조·의료·교육·문화·예술·체육계 등 각 분야 전문가
- ■ 교육 기간 : 2022년 3월~2022년 11월
- ■ 강의 시간 : 매주 화요일 저녁 7시~8시30분(호텔식사 제공)
-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22년 2월 28일까지
- ■ 합격자 발표 및 등록 : 서류전형 후 개별통보
- ■ 수강료 : 550만원(부가세 포함)
- ■ 문의 : 광주일보 편집국 062-220-0663

光州日報社

영산강 수질악화의 '주범' 알고보니… ▶6면
환희·탄식 교차한 2021 광주·전남 스포츠 ▶18면
조현영의 '클래식 영화를 만나다' ▶22면